

KMI 국제물류위클리

www.kmi.re.kr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물류항만연구단 물류항만연구본부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집필에 관한 안내

1. KMI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 세계 물류동향 중 국제물류투자 협의체 회원사들(2010.6 현재 122개 업체)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신규 해외사업 발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중점적으로 제공합니다
2.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들과 국토해양부 관계관 여러분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수요일 배포됩니다
3. 「KMI 국제물류위클리」를 통해 소개되는 글로벌 물류 신규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는 회원사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리 센터는 투자단(물류, 건설, 금융사 등) 구성 주선 등의 역할을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
4. 「KMI 국제물류위클리」는 국제물류투자협의체 회원사 여러분들에게 국내외 국제물류 관련 주요 공지사항을 알려드리는 매체로서의 기능도 수행합니다

< 목 차 >

□ APM 터미널, 중국 충칭항 진출 추진	2
□ 베트남 Cam Ranh항, 1단계 개발에 착수	4
□ 인도 Cochin항 Vallarpadam 환적 「컨」터미널, 항비 인하키로	5
□ 인도 Gopalpur항 개발, 차질 없이 진행	6

□ APM 터미널, 중국 충칭항 진출 추진

- 세계 5위의 글로벌 컨테이너 사업자인 APM 터미널사는 양쯔강(Yangtze River, 揚子江) 상류에 위치한 내륙항만인 충칭항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
 - APM사는 2009년에 세계 32개국 50개의 자사 컨테이너터미널에서 총 3,100만 TEU를 처리하였으며 세계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매출액 30억 2,100만불, EBITDA 7억 3,800만불(EBITDA 비율 24.4%), 당기순이익 4억 4,200만불을 기록
- 양쯔강 내륙 항만물류 현황(요약)
 - 2009년 양쯔강 내륙항만 31개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651만 TEU로 2008년 대비 6.5% 감소하였으며 최대 300TEU급의 바지선 또는 피더선으로 컨테이너를 운송
 - 상하이항에서 양쯔강 상류쪽으로 약 2,400km에 걸쳐 있는 내륙항만과 상하이항간의 바지선 및 운송은 중국 국적선만 운송 가능(Cabotage 시스템, 현재 35개 선사가 운송에 참여)



- 충칭항(Port of Chongqing, 重庆港) 개요
 - 충칭시는 중국 4번째의 직할시(1997.6.18 승격)로 쓰촨성(Sichuan Province, 四川省)에 소재한 인구 3,182만명(2006년 기준)의 대도시
 - China People's Daily Online에 따르면 충칭시의 2009년 GDP는 약 6,500억 위안(약 952억불), 1인당 GDP는 중국 도시 중 7번째인 9,221 위안(약 1,350불)을 기록
 - ※ 2009년 중국 GDP는 세계 3위인 4조 7,580억불, 한국은 세계 15위인 8,203억불(CIA Factbook)
 - 상하이항에서 서남쪽으로 1,500km 떨어진 양쯔강 상류지역에 위치한 내륙항만(Inland Port)으로 2009년에 전년 대비 5.7% 증가한 1,210만톤의 화물을 처리(컨테이너는 354,000 TEU로 18.6% 감소)



○ 충칭항의 여건, 및 컨테이너터미널 운영현황

- 충칭항에서 상하이항으로 바지선을 이용한 수로운송시 육로 및 철도운송에 비해 시간은 많이 걸리나 운송비용면에서 유리(Deloitte Reserach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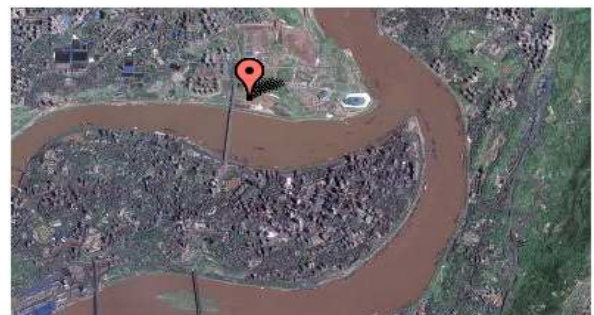
운송수단	거리(km)	운송시간(일)	TEU당 운송비용
바지선	2,400	8일(상류 11일)	2,500 위안
철 도	2,250	7~10일	4,300 위안
육 로	2,150	3~4일	12,000 위안

- 충칭항에는 Chongqing Gangjiu(重庆港九股份有限公司)가 운영 중인 Jiulongpo 터미널 (연간 20만 TEU 능력)과 Chongqing Int'l Container Terminal(重庆国际集装箱码头有限责任公司)이 운영하고 있는 Lanjiantuo 터미널 (연간 28만 TEU 능력, 2010년 연간 70만 TEU로 확장)의 양대 터미널이 있으나 2012년까지 연간 200만 TEU 능력으로 확장 계획



○ APM 터미널사의 충칭항 참여계획 및 전망

- APM 터미널사는 최근 자사 터미널 재편의 일환으로 미국 Portsmouth 터미널의 운영포기 및 중국 선전항 엔텐 지분을 매각 조치(관련내용 “KMI국제물류위클리 56호, 57호” 참조)
- 2010.5.20 APM사의 Chongqing Port & Logistics Group(重庆港务物流集团有限公司)과의 MOU 체결은 인구 1억명의 Sichuan성 경제권의 중심 내륙항만인 충칭항의 거점화 포석으로 추정
- 충칭 부근에는 Ford 자동차, ABB, Hewlett Packard사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진출
- APM사의 구체적인 참여내용은 미공개이나 기존 및 신규터미널 모두 참여 가능성



자료 : Chongqing Port & Logistics Group, Chongqing Int'l Container Terminal, CI-Online 2010.5.19

□ 베트남 Cam Ranh항, 1단계 개발에 착수

○ Cam Ranh항 개요

- 베트남 중남부 해안 Khanh Hoa Province에 위치한 신생 소형항만으로 현재의 연간 화물 처리능력은 150만톤 정도에 불과
- 항만시설의 규모는 2선석 309m(수심 6~11m), 최대 3만 DWT급 선박 접안 가능
- Khanh Hoa 주정부 산하의 Cam Ranh Port Limited Liability Company가 항만관리청



○ Cam Ranh항 개발계획

- 1단계 개발은 2012년말까지 240m 선석(최대 5만톤급 선박 접안)을 추가 건설, 2010.5 착공
- 베트남 국영선사인 Vinalines가 개발사업자로 총 5,200억 Dong(약 2,600만불)을 투자
- 다목적부두 1선석의 준공시 연간 처리능력은 250~300만톤으로 확대될 예정
- 2020년까지의 2단계 개발계획은 현재의 다목적 부두를 컨테이너 전용부두로 전환하고 여기에 추가로 일반화물 1개 선석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
- 컨테이너 하역장비 보강, 컨테이너 야드 및 컨테이너 수리 시설 개발도 포함



자 료 : Cam Ranh Port Limited Liability Company, Vietnam News 2010.5.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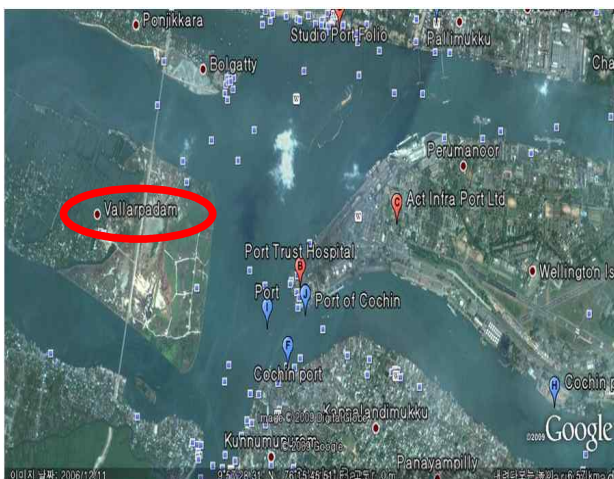
□ 인도 Cochin항 Vallarpadam 환적 「컨」터미널, 항비 인하키로

○ Cochin항 개요

- 인도 서남부에 위치한 Cochin항은 세계 해운의 간선행로에서 불과 1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Hub 항만으로의 좋은 여건을 구비, Cochin Port Trust가 항만관리청
- 기존에 DP World사가 운영 중인 컨테이너 터미널(IGT : India Gateway Terminal)은 3선석 560m, 수심 12.5m, 연간능력 35만 TEU, 야드면적 9ha(9만m², 약 27,000평)



- DP World사가 기존 IGT 건너편 Vallarpadam섬에 건설하고 있는 International Container Transshipment Terminal(ICTT)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어 오는 8월 1일 개장 예정
- 30년 BOT 조건, 공사비 5억불 투자, 연간 100만 TEU 처리능력(수심 16m)
- 최근 Cochin Port Trust 항만위원회(Board)는 공사 마무리가 지연되어 당초보다 늦은 2010.8.1 개장 예정인 ICTT에 입항하는 컨테이너 모선에 대해 입항료 및 Terminal Handling Charge 등 항비를 감면키로 의결
- ICTT의 개장으로 현재 인도 컨테이너 물량의 70%가 환적 처리되고 있는 Colombo항, Singapore항, Dubai항 및 Salalah항의 물량이 상당수 흡수될 전망



자료: Cochin Port Trust, Journal of Commerce 2010.5.27

□ 인도 Gopalpur항 개발, 차질 없이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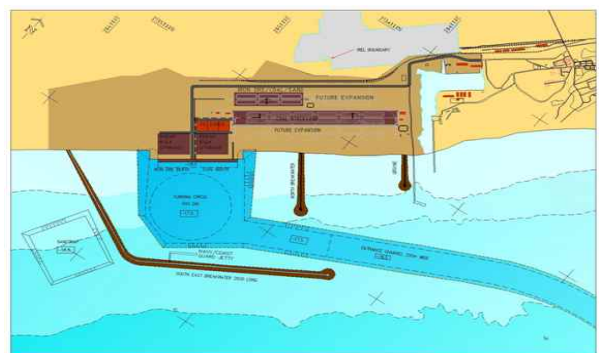
○ Gopalpur항 개발 프로젝트 개요

- 인도 동중부 Orissa주에 건설되고 있는 항만으로 2006년 30년 BOOST(build-own-operate-share-transfer) 조건으로 사업자를 선정
-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움에는 인도의 Orissa Stevedors Ltd(OSL), Sara International Ltd와 홍콩 Noble Group 등 3개사 참여, SPC인 Gopalpur Ports Limited(GPL)가 설립
- 2012년까지 1단계로 연간 2천만톤 처리능력의 항만시설을 건설 중



○ 프로젝트 진행상황 및 최근의 진전사항

- 사업시행사인 GPL사는 최근 1단계 사업비 85억 루피(약 2,100억원)에 대한 용자약정을 Punjab National Bank(PNB)를 간사은행으로 하는 11개 은행 컨소시움과 체결
- 현재 진행 중인 1단계 사업은 2012년까지 방파제와 3개 선석 및 부대시설을 건설
- 당초 컨소시움에 참여하였던 홍콩의 Noble Group의 최근 컨소시움 탈퇴에도 불구하고 GPL사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
- GPL사는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끝나는 대로 2단계 사업(2016년까지 12만톤급 선박의 접안 가능시설로 확장 등)을 추진할 계획



자 료 : Gopalpur Ports Limited, Economic Times 2010.5.28

유재만 연구위원(☎ 02-2105-4964, yoojmn@kmi.re.kr)